

■ 아랍권 시위를 보도하며 떠오른 라틴아메리카

김 순 배

‘라틴아메리카에서 저런 보도거리가 나왔더라면...’

아랍권 반정부 시위 관련 기사를 쓰는 국제담당 기자로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혼란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초래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지만, ‘거리’가 없으면 무작정 기사를 쓸 수 없는 기자로서는 이만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을 끌 보도거리가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튀니지를 시작으로 아랍권에서 반정부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랍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사태는 시청자와 독자들이 작게는 아랍권 개별 국가의 지리적 위치부터 복잡한 권력구조 및 문화적 배경까지 익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 언론보도에서도 여전히 홀대받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받는 관심에 비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지난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칠레 및 아이티 지진이 큰 뉴스거리였지만, 재난이라는 특성상 해당 지역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식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번 아랍 시위는 관심을 끌만한 라틴아메리카 관련 기사거리도 뒤로 밀어 제쳤다.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블랙홀처럼 그 밖의 기사를 집어삼키는 언론보도의 특성상, 다른 기사는 자리를 얻기 어려웠다. 지난 2월 15일 미국 정유업체 셰브론에 대한 배상판결이 대표적이다. 셰브론이 아마존 밀림 지역에 350여개의

유전을 시추하면서 20여 년간 680억ℓ의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방류한 등의 혐의로 이 지역에 사는 3만 명의 원주민에게 최소 80억 달러(약 8조9600억원)를 지불하라고 에콰도르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원주민들이 1993년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환경·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건으로,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18년이나 걸렸다. 이 기사는 아랍권 시위에 밀려, 보도가치보다 훨씬 작게 다뤄졌다. 칠레 강진 1주년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라틴아메리카 순방 등도 묻혔다.

일부러 언론에 보도되고 세상의 관심을 끌 보도 거리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번에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의 대응은 학계가 세상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데 참고할만한 사례로 눈에 띄었다. 국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빼면 지역연구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중동지역도 그 하나로, 아랍에서 시위가 번져갔지만 관련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국내 자료는 태부족이었다. 그러던 차에, 이 연구소의 활동이 눈에 들어왔다. 이 연구소는 지난 1월17일 1차 세미나 이후 거의 1주일 단위로 3월28일 현재 모두 9차례의 아랍시위 관련 <중동현안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었다.

2월8일에는 해당 연구소 제안으로 중동학회, 중동문제연구소,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과 같이 공동학술회의가 열렸다. ‘중동 현안 긴급 진단-이집트, 수단, 튀니지 사태와 중동의 민주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 이 행사는 명지대 행정동 3층 대회의실에 100명 가까이 참석해 앉을 자리가 모자랐다. <한겨레21>뿐 아니라 <한국방송>, <동아일보> 취재진이 참석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행사를 사진과 함께 다음날 크게 보도했고, 전날에는 <서울신문>이 관련 자료를 받아 주요 발표 내용을 먼저 보도했다. <한겨레21>은 해당 연구소 연구진의 글을 2쪽에 걸쳐 게재했다. 이

런 보도는 추후 언론보도에 연쇄 효과를 일으켜, 이번 아랍권 시위 과정에서 개인으로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정민 교수를 제외하면, 연구소 단위에서는 이곳의 언론 인용빈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연구소는 가능한 세미나 자료를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해 기자가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시사주간지 <시사IN>인과의 공동기획이 눈길을 끌었다. 국내 주간지 시장 1~2위를 다투는 매체에 공동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사IN> 2월26일자 180호부터 3월26일 184호까지 5차례에 걸쳐, 2~4쪽 분량씩 해당 연구소 연구진이 아랍 민주화 시위 관련 글을 연재됐다. 이 연구소의 대응은 다른 2개 대학 중동 관련 연구소들이 같은 기간 관련 주제로 (최소한 홈페이지에 외부 인사를 초청한) 공개세미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차별화된 대응이다. 해당 연구소가 2010년 12월 인문한국(HK) 연구소로 선정됐고, 나머지 2곳은 유망연구소라는 차이가 있지만 인력과 연구비의 차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가 아랍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낼 절호의 기회로 현 사태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 대중과의 소통이 고민으로 자주 제기된다는 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매스미디어는 대중과의 최대 소통 통로며, 대중과의 ‘스킨십’이 연구기반의 확대의 최대 자산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언론사에 있다 보면, 학계는 현안과는 동떨어진 주제를 논의하거나 현안이 한참 지나간 뒤에 관련 학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는 보도가치가 크게 떨어져, 아쉽게도 시의적으로 ‘한가한’ 얘기로 들릴 때가 많다. 그만큼 언론에서 다뤄지기 어렵다. 언론사 데스크의 반응은 “그거 다 지난 얘기잖아. 따끈따끈한 것 없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는 튀지니에서 시작된 아랍권

시위의 확산추세에 맞춰, 국가별 등으로 관련 주제를 바꿔가며 시의성 있게 세미나를 열었다. 이집트가 현안일 때는 이집트 관련, 시리아 시위가 격화될 때는 시리아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해당 연구소뿐 아니라 한국외대나 외교안보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들을 발표자로 초청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과 한화증권 등 기업 및 외교부 정책기획국 등 정부 관계자들도 세미나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종화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소장은 2월8일 공동학술 회의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학계가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소 박현도 책임연구원은 “이런 시도를 학계에서 거의 안 해봤다. 학자들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이 생기고 여러모로 괜찮았다. 아직 모자란 점이 많지만, 이런 활동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국가에 자료를 내줄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사회 중심의 연구소라는 한계를 벗기 위해, 경제중심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전략정보분석업체 스트래트포(STRATFOR)처럼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장기적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한다.

한국 언론에서 라틴아메리카 뉴스는 여전히 푸대접을 받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펴낸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에 따르면, 국내 언론사(18개 일간지, 2010년 11월 현재)에서 해외특파원 65명 가운데 40%가 워싱턴과 뉴욕, LA, 캐나다 등 북미에 주재하고 29%는 중국, 20%는 일본에 있다. 2009년 초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41명의 특파원을 파견했

지만 라틴아메리카는 멕시코와 브라질만 특파원을 두고 있다. 브라질은 통신원 체제로 운영하다가 2008년 특파원으로 승격했다. 지난 3월 초 귀국한 칠레 특파원은 연수파견이어서 한 달에 3~4건 정도만 1년간 송고했다. 2009년 조사 당시, <한국방송>은 국제부원 27명에 특파원 19명이었지만 라틴아메리카는 상파울루에만 특파원을 파견했다. 멕시코는 LA 특파원이 담당했고 <SBS>와 <MBC>는 라틴아메리카 특파원을 운영하지 않았다.

위 책에 따르면, 해당 저자들이 2010년 8월 10일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7개국 주요 14개 신문의 국제뉴스를 분석한 결과 한국 신문의 국제면 가운데 미국 관련 보도의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다. 그만큼 국내 언론의 보도가 치우쳐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 현실적 보도가치도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및 교민 숫자 등을 따질 때 미국 등이 앞설 수밖에 없다. 라틴아메리카가 여건상 차차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르헨티나는 걸핏하면 ‘포퓰리즘’ 이 망친 나라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등 한국 언론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다. 그만큼 학계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심 끌기’ 및 대사회 소통에 나서는데 절실하다. 작은 거리라도 적극 키우고 홍보하는 ‘자가발전’ ‘학문적 PR’ 이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와 관련 어떤 사안이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올해 일정상으로는 거의 없다. 4월 페루 대선에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 당선된다면 그나마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도 낮고 반짝 관심거리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재선되면 관심을 끌겠지만, 이 역시 한 끼 기사밖에 안 된다. 시청자나 독자가 관심을 가질 거리는 이런 캘린더성이나 희생이 따르는 재앙

또는 정권전복 사태가 아니더라도 많다. 2010년 12월31일 퇴임 직전까지 85%를 웃도는 기록적 지지율을 기록한 이나시우 툼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화제였는데, 그의 재임 8년을 냉정히 짚어보는 자리가 학계에서 마련되고 홍보됐더라면 언론의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싶다. 언젠가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이 아랍권의 반정부 시위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나름 상당한 대중적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모의 아랍권 시위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 라틴아메리카에서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라틴아메리카 학계도 대사회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웹진 발행이나 포털사이트 구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집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아랍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한 한 연구소의 대응이 라틴아메리카 학계의 대사회 소통에 작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